

“위엄·욕정·구레나룻 새롭고 강렬한 임금”

최민수, SBS '대박'서 속종 열연에 첫회 시청률도 '대박'



확실치 이런 속종은 처음이다. 덩수룩한 구레나룻에 범접하기 어려운 위엄, 이글대는 욕정과 승부사 기질... 그가 캐릭터를 입으면 같은 역할도 이렇게 달라진다. 역시 대체불가다.

최민수(54·사진)가 SBS TV 월화극 '대박'의 1~2회에서 화면을 장악했다.

그가 새롭게 해석해 내놓은 카리스마 넘치는 속종의 모습에 '대박'은 새판이 짜인 방송 3사 월화극 대결에서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인터넷에서도 단연 최민수의 연기가 화제다.

지난해 KBS 2TV '나를 돌아봐'에서 빛아진 폭행 사건으로 또다시 구설에 올랐던 그이지만, 그가 '광대'로서 보인 연기에는 잡음이 끼어들 틈이 없었다. 타고난 끼와 가슴 속 불을 연기로 소화하고 해소해야 하는 천형을 타고난 듯한 최민수를 지난 1일 인터뷰했다.

- 반응이 폭발적이다.

▲ 그런가? 잘 모르겠다. 그냥 임팩트가 있으면서도 새롭게 느껴지는 속종의 모습을 찾아내려고 했다.

- 왕 역할이 처음이다. 사극서 무사만 연기했다.

▲ 그동안 왕 역할 제안은 많이 왔었는데 별로 하고 싶지 않았다. 사극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다.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 내가 논리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왜냐고 물으면 할말은 없다. 그냥 이번에는 왕을 한번 해보아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간 사극에서 그려진 왕의 전형적인 모습,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과 같은 근엄하고 위엄있는 모습에 더해 권력을 쥔 자의 삶의 모습을 그려보고 싶었다.

- 속종을 새롭게 해석했다.

▲ 속종은 그간 사극에서 장희빈과 인현왕후를 통해 그려진 인물이다. 그런 인물을 다르게 표현하고 싶었다. '대박'이 속종 중심으로 돌아가는 드라마는 아니지만, 속종을 통해 권력의 상징성을 그려내고 싶었다.

다른 게 뭐가 있을까? 문헌을 찾아보며 연구했다. 속종에게는 여자가 9명 정도 됐던 것 같더라. 그런데 여자가 많았던 게 단순히 여성편력 때문이 아니라 건강상의 문제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의 아들 경종이 천식이 심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게 유전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속종이 천식을 앓는 것처럼 설정했다. 잔기침을 많이 하고 목소리도 약간 쉰듯, 갈라진듯 설정했다.

촬영장에서 일부러 잔기침을 많이 한다. 또 속종이 죽을 때 목 뒤에 혹이 나 있었다는 기록을 보고 혈액 순환이 안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속종이 여자가 많았던 것이 사실은 폐가 약하고 몸이 찬 남자이기에 여자에게서 따뜻한 기운을 얻고자 그랬던 게 아닐까 상상했다. 또 속종은 성격이 예민하고 과박했던 것 같은데 그게 다 몸에서, 건강의 문제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었을까 해석했다.

그간 속종은 궁중 암투에 휘둘린 왕으로 주로 그려졌는데, 이번에는 속종의 입체적인 모습, 속종만의 아이덴티티를 찾아나서고 싶었다. 3부에서는 속종이 안경을 쓰고 나온다. 내 아이디어다. 찾아보니 속종이 왕 중에서 안경을 가장 먼저 썼더라. 그래서 소품팀에 맡겼더니 안경박물관에서 구해왔더라.

- 왕의 구레나룻이 특이하다. 비주얼부터 차별화된다.

▲ 사극 속 왕의 모습은 단정하고 깔끔한 전형적인 모습이 있다. 이번에도 우리 분장팀과 연출팀은

내게 그런 모습을 요구했다. 그런데 왕도 사람 아닌가. 개성이 있고 흐트러진 모습도 있을텐데 너무 고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고종도 사진을 보면 용포를 기워 입은 흔적이 있더라. 티끌 하나 없이 완벽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내 구레나룻이고 내 머리로 상투를 틀었다. 분장용 털을 붙인 게 아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수염도, 머리도 길렀다. 사람으로서 흐트러진 모습도 보여주고 싶었다. 왕이라고 정화한 자세로만 앉아있지 않았을 것 아닌가.

- 왕이 여자를 탐해 투전판에까지 끼었다.

▲ 남자의 분노이랄까. 13살에 왕이 돼 하는 꼭대기에서 살던 자에게 삶의 재미가 뭐가 있을까 싶다. 그런 왕에게 오랜만에 가슴을 뛰게하는 여자와 재미있는 일이 생겼다. 실제로 속종이 변복을 하고 많이 다녔다고 하니 상상의 에피소드지만 아주 황당하지는 않아보였다.

- 극중 속종은 궁 밖의 자식과 궁 안의 자식을 거느리게 된다.

▲ 노론과 소론 당파싸움 속 왕도 정보전을 치러야 했을 것이다. 속종이 극중 대길(장근석 분)을 살려준 것은 아마도 궁밖 소식을 얻기 위한 안테나가 필요했기 때문이 아닐까 해석한다. 대본이 끝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뒤의 이야기는 모르지만 그런 호석이 아닐까 싶다. 실제 영조한테는 어려서 죽은 형이 있었다고 하더라. 대길이는 그 아이를 모델로 살을 붙인 인물인 것 같다.

- 연기관 최민수에게 무엇인가.

▲ 공기 같은 것이다. 좋고 나쁘고 떠난 문제다. 내가 찾아가게 하고, 도전하는 즐거움을 주는 그 무엇이다. /연합뉴스

이경규 김성주



MBC '능력자들' 진행

김구라 하차 ... 7일 첫 방송

금요일에서 목요일로 자리를 옮기는 MBC TV '능력자들'이 이경규-김성주 두 MC 체제로 바뀐다.

MBC에 따르면 '능력자들'은 7일부터 이경규-김성주 두 사람의 진행하는 것으로 새 단장해 전파를 탄다.

MC 교체는 '능력자들'이 목요일로 방송 일을 옮기고, 타 방송사의 동시간대 프로그램

출연 출연 중인 김구라가 겹치기 출연을 피하고자 하차하면서 이뤄졌다.

김성주의 소속사 티핑엔터테인먼트는 이날 "파일럿 프로그램부터 '능력자들'과 함께한 애착이 컸던 김구라가 '복면가왕', '화성인 바이러스', '명랑 히어로' 등을 통해 현 분이 두터운 김성주를 후임 MC로 강력하게 추천했다"고 전했다.

새단장한 '능력자들'은 7일 목요일 밤 11시 10분에 첫 방송 된다. /연합뉴스



김래원 박신혜

SBS '닥터스' 서 연기 호흡

배우 김래원(35)과 박신혜(26)가 SBS TV 새 월화드라마 '닥터스'에서 연기 호흡을 맞춘다.

'닥터스' 제작을 맡은 팬엔터테인먼트는 최근 남녀 주인공으로 두 배우가 발탁됐다고 밝혔다.

김래원은 고등학교 교사이자 신경외과 전문의인 홍지홍을 연기한다. 여주인공 유혜정의 인성을 뒤바꾸는 멘토이자 선배로

등장, 교사와 의사를 넘나드는 매력에 보여줄 예정이다.

박신혜는 어릴 적 상처 때문에 누구도 믿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은 채 반항기만 가득한 유혜정을 맡았다. 스승 홍지홍 덕분에 서서히 변화하면서 결국 그늘진 과거를 뒤로 한 채 의사가 된다.

드라마는 사극 '대박'에 이어 6월부터 방송된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토크쇼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내일도 승리)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내 사랑의 여자)
9 00 신문이야기 들춰주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55 제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 토론회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인사이드35	00 제20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토론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40 아내가 뿔났다 남편발상(재)		00 월화드라마 (동네 변호사 조들호)(재)	00 SBS 12 뉴스 30 민영방송 공동기획 (물은 생명이다)	00 닥터365 05 세상발견 유레카(재)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 뉴스 20 통일 전망대	00 SBS 12 뉴스 30 민영방송 공동기획 (물은 생명이다)
1 10 뉴스특급	00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00 사람과 사람들(재)	10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00 4·13총선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2 30 직언직설	00 제20대 총선 후보자 법정토론회	00 KBS 뉴스타임 10 다큐 맨터리 3일	0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50 텔레몬스터	00 닥터365 05 세기의 라이벌 미래를 만드는 천재들 55 TV 블로그 탐지력
3	05 후토스 물어버린 숲(재) 30 자동차부품상 위키	05 투토스 물어버린 숲(재) 30 자동차부품상 위키	00 MBC 뉴스 10 똑똑 키즈스쿨 55 타스의 풀이왕이 사자성어	00 3시 뉴스브리핑
4 3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한국의 야생 20 추재파일 K(재)	00 TV유치원 30 아육정 PD의 자연담은 한끼 40 동물의세계(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재)	30 인생 자두야
5 40 김승연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지오그래피	00 동네스타 전국 방송 내보내기(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아내가 들려주는 이야기 토크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2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7 30 우리들 겨루기	50 일일드라마 (천상의 약속)	05 선거연설행 15 일일연속극 (최고의 연인)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탐지력 20 일일드라마 (미녀의 성)
8 20 TV 주치의 닥터 지·비·고	25 우리집 골단지	30 2TV 생생정보 플러스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MBC 일일특별기획 (아름다운 당신) 30 리얼스토리 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9			
10	00 제20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연설 1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동네 변호사 조들호)	00 월화 특별기획 (문스터)	00 월화드라마 (대박)
11 00 풍문으로 들었소	10 KBS 뉴스라인 40 넷위크 기획 문화산책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선거 연설행 20 테마기획 길	10 동심이몽 관참아 관참아
12 40 개밥주는 남자(재)	20 해외걸작드라마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MBC 뉴스24 30 메이저리그 다이어 45 스포츠 특선 2016 코리아 합합댄스 챔피언십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건강강 아침 05:40 성공시대 가능 한국인 (미세먼지 잡는 환경 파수꾼 - 환경설비 하승범) 06:10 EBS 인문학 특강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 07:30 로보카 폴리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뽀롱뽀롱 유치원 1~3 08:45 코코코 다코 09:00 캐니멀 09:30 원더블즈	09:40 라이브 토크 (부모) 10:30 최고의 요리비결 (퀵리콜 편집자 매종중 북음) 11:00 세계테마기행(재) 11:40 한국기행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시대공간 (우리) 12: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13:50 원더블즈(재) 14:00 미술탐험대 14:30 부릉부릉 부른미즈 15:00 모피와 친구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4일 (음 2월 27일 丙辰)

<p>子</p> <p>48년생 재판사가 지연되고 결과가 늦추어질 수 있다. 60년생 관건이 될 만한 핵심 가치에 주목하라. 72년생 근본을 살펴보면 길길이 정해질 것이다. 84년생 한 번 나타난 정황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행운의 숫자 : 85.56</p>	<p>午</p> <p>42년생 주변 상황까지 정확히 살펴치 않으면 아니 되느니라. 54년생 막연하다면 공허할 수밖에 없으니 구체적인 필요가 있느니라. 66년생 참으로 기쁜 일이 생기기 되는 날이리라. 78년생 과감한 용기가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59.33</p>
<p>丑</p> <p>49년생 확실한 의사 표시와 행동을 보여야 할 때다. 61년생 가장 손쉬운 부분부터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73년생 힘들더라도 끝까지 참아내야만 하느니라. 85년생 이변을 자초하는 동세가 돼버릴까 두렵다. 행운의 숫자 : 82.05</p>	<p>未</p> <p>43년생 약간의 활동해도 편안한 결과를 날기에 충분하리라. 55년생 잡다함을 차치해야만 길조를 상상시킨다. 67년생 자제한다면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하겠다. 79년생 일관성을 가지고 소신껏 행하라. 행운의 숫자 : 11.70</p>
<p>寅</p> <p>50년생 걱정할 일이 아니니 마음 편히 있어도 된다. 62년생 금금해 왔던 바를 명쾌하게 파악한다. 74년생 한 발짝 물러서서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 86년생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야만 난국을 풀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8.73</p>	<p>申</p> <p>44년생 지난번의 형세가 다시 시작된다. 56년생 문제점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68년생 여러 가지 결과물이 생기겠으나 실속이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다. 80년생 현실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51.43</p>
<p>卯</p> <p>51년생 오랫동안 갈구하여 왔던 힘의 기반이 생긴다. 63년생 향방을 좌우할 것이니 현명한 취사선택이 절실한 때이다. 75년생 판도를 좌우할만한 결정적인 방도가 절실하다. 87년생 쉬 더운 구들이 쉬 식는 법이리라. 행운의 숫자 : 30.07</p>	<p>酉</p> <p>45년생 치열함의 강도에 따라서 성과가 좌우될 것이다. 57년생 체면을 의식하기는 아무런 일도 못한다. 69년생 어떠한 경우라도 예정대로 이행해야 한다. 81년생 부족함을 채우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라. 행운의 숫자 : 13.67</p>
<p>辰</p> <p>40년생 개별적 인식이 명확해야 한다. 52년생 큰 소리가 나지 않게 조용히 처리하라. 64년생 성취의 문이 열릴 것이다. 76년생 정성과 숨쉬에 따라서 결과가 판이하리라. 88년생 즉시 조처했을 때에 부작용을 줄인다. 행운의 숫자 : 39.20</p>	<p>戌</p> <p>46년생 사실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대응하라. 58년생 신은 결코 행동하지 않는 자를 돕지 않는 법이다. 70년생 이번 고비만 잘 넘기면 호전될 것이다. 82년생 목격하는 바는 보이지 않고 불편함만 나타난다. 행운의 숫자 : 44.97</p>
<p>巳</p> <p>41년생 전체적인 대안이 되어 출만한 확실한 해결책이 생길 것이니 기대해도 좋다. 53년생 변화의 폭이 크다. 65년생 바로 그것이다. 77년생 균열을 매운다면 오히려 튼튼해질 것이다. 89년생 기벌의 지리에 함께할 수다. 행운의 숫자 : 21.48</p>	<p>亥</p> <p>47년생 분명하게 유념해야 할 것이다. 59년생 우월하더라도 지장이 없으니 확실하게 임하라. 71년생 다각적인 방법의 모색을 해보는 것이 유익하다. 83년생 드러나는 형태의 폭이 넓어지고 다양해질 것임에 틀림없다. 행운의 숫자 : 96.27</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